

# 포항시 “글로벌 이차전지 연구개발 중심 자리매김에 집중”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 특강 전문가·연구기관 등 한자리 해외 인적교류·공동연구 활성화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4 브레인 링크(Brain Link) 기술교류회’에 참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석학들에게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알리는 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8일 인천 그랜드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에 참석한 국내외 이차전지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강덕 시장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2대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매개로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연구 공유 및 네트워킹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이차전지 석학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이강덕 포항시장이 18일 인천 그랜드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브레인 링크 기술교류회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포항’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기관, 대학 및 해외 재외한인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인적교류 확대 및 글로벌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포항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포항이 이차

전지 산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발자취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이차전지 산업이 포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을 GRDP, 수출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해 소개하고, 에코프로 등 대규모 기업 투자와 국책사업 유치로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한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오는

2030년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을 목표로 전방위 산업 육성 거점인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글로벌 연구 확대를 위한 해외 연구소 유치 등 미래 포항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 국제 컨벤션센터 포엑스(POEX)의 2027년 준공을 앞두고 국제 이차전지 엑스포, 글로벌 배터리 도시 포럼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하며 향후 전문가와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는 연구 중심 대학인 포스텍과 이차전지 해외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 여건 조성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 ▶ 지역 이모저모

### 울진군

#### 한울원자력 ‘감사드림’ 콘서트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 본부(본부장 이세용)는 “울진군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24년도 ‘감사드림(感謝&Dream)’ 콘서트를 한울에너지 팜 대강당에서 오는 30일 18시에 공연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드림(感謝&Dream)’은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맞아 울진군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대한민국 전력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울진과 함께 미래를 꿈(Dream)꾸고 그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 한국도로공부 산경남본부

#### 공부방 봉사 대학생에 장학금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18일 경남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아동 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난 3년간 지역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경남 지역 대학생 총 10명을 선정해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달식 후에는 지역 공공기관 ESG 협의체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저연차 직원들이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 및 면접 전략 등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멘토링도 진행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매년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가 1년간 행사를 마무리했다.

###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1년 행사 마무리

#### 1년 동안 20개 교류행사 진행

한중일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가 1년간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해시는 19일 오후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의 폐막식을 개최했다. 폐막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경상남도의장, 쿠리타 신이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수석영사, 우리비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시 대표단, 한중일 협력사무국, 이만기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의 올해 선정도시이자 ‘세계 연의 수도’ 웨이팡시에서 시를 대표하는 연 계승자를 비롯한 연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 가야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성동 고분군에서 한-중 대형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하며, 두 도시 간의 ‘연(緣)’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1년 동안 20개의 교류행사를 진행하면서 3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 다롄시와는 11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북도, 내년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 총사업비 252억 확보… ‘전국 최대’

#### 농식품부 공모사업서 확보 영주시, 의성군 등 총 6곳 선정

경북도가 내년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공모 가운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분야에서는 영주시가 15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분야에서는 의성군 47억 원, 상주 공성농협 34억 원, 유통시설 현대화 부문에서는 남청송농협 9억 원, 동문경농협 7억 원, 문경 점촌농협 4억 원 등 6곳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2억 원을 확보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상품화 및 규격화에 필요한 집하·선별·

저장·출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도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해 꼭 필요 한 시설이다.

특히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곳당 최대 150억 원을 투자해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조성하고 소규모 산지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올해 김천시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년 신규 선정된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 1만 2300m<sup>2</sup> 규모로 조성돼 사과·전문 스마트화장비 도입으로 상품화율을 높이고 사과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해남군, 명량대첩축제서 韓-中 우호 증진

#### 中 정부 관계자·진린장군 후손 방문

2024 명량대첩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중국 광동성 옹원현·운안구의 정부 관계자들과 진린장군 후손들이 해남을 방문했다.

진린장군은 정유재란(1597년)이 발발하여 수군 파병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명나라 수군의 도독으로 임명되었으며, 1598년 이순신 장군과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로서, 특히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는 진린장군의 유지에 따라 후손들이 이주·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진린장군의 사당인 황조별묘가 위치해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진린장군의 출생지인 광동성 옹원현과 지난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해 매년 명량대첩축제에 진린장군 후손 등을 초청해 교류하는 등 우호협력을 이어온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운부시 운안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올 3월 협약을 통해 양 도시간 청소년,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는 축제 참가 외에도 옹원현과 운안구의 축구 대표팀이 함께 입국해 해남군 축구협회와 친선경기를 갖는 등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개최

‘2024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화 전시회와 해양치유 및 맨발 걷기 체험, 청산도 은하수 투어,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먼저 국화 전시회는 국화 3만 본을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 식재했으며

10월 25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치유 체험은 모래 테라피, 머드 랩핑, 해변 요가·명상·노르딕 워킹 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5일과 26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어썸 블루 치유 콘서트’가 열린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 진주시

####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개장

경남 진주시는 정촌면 화개리에 13홀 규모로 조성된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백승 흥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시의원, 진주시 체육회장 및 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진주시는 어르신 이용 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 체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3500m<sup>2</sup>에 13홀 규모의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